

지역 소식통



고창군 대산면 이팝나무 만개

천연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된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목교마을의 이팝나무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하얀 꽃을 피워 눈길을 끈다.

나무 전체에 뒤덮인 하얀 꽃이 마치 쌀밥(이밥) 같다고 불리는 이팝나무는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짐작기도 했으며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 즈음에 꽃이 피어 입하목(立夏木)으로 불린다.

특히,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는 수령 약 250년 정도에 높이 10.5m, 둘레 2.68m로 '이팝나무'로서는 매우 크고 오래된 노거수(老巨樹)로 생물학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고창군·국립산림과학원·문화재청이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전자은행을 통해 복제나무 육성에 나서기도 했다.

대산면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를 맞아 이팝나무 주변 환경정화과 제초작업을 시행해 아름다운 볼거리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읍 하천·하구 환경정화활동

부안군 부안읍은 깨끗한 하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천·하구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환경정화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읍은 지난 21일부터 신운천을 비롯한 9개소 하천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했다.

특히 부안읍은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유입 되는 부유쓰레기가 하천이나 하구에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천·하구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코자 환경정화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용환 부안읍장은 "하천·하구 쓰레기는 폐농작물,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이 대부분인 만큼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하천변을 이용하는 주민 및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정화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적극적 소통으로 주요 현안 해결

박우정 군수, 사업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추진상황 점검

박우정 군수가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28일 고창 자연미당 조성사업과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하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요사업장 3개소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장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고창 자연미당 조성사업"은 고창읍 농동리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서식 공간과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자연미당 조성사업은 최근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보상 및 분묘이전이 진행되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부

안면 용산리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체류시설과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해 12월 착공했고 올 10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해 올 11월 개관·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가 개관하면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센터에 입교해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영농교육과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초기 영농정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탄탄히 구축돼 귀농귀촌 1번지의 위상을 올리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8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심원면 하전 일원의 오수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 후 하수처리장 시운전 중이며 올 10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전마을 생활오수의 적정 처리와 세계 랍사르습지인 고창갯벌의 오염원을 차단해 청정 갯벌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정 군수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며 "군정의 모든 목표는 군민의 행복함께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분향, 이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2017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 개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개 사업 선정 홈페이지 통해 공개

부안군이 지역발전 위한 현안사업을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2일 2017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갖고 총 66개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적정성 및 누락사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20개 사업을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

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관심이 높고 예산규모가 커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친 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지원·부안읍 정원문화도시 활성화 추진·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6차 산업수익화 모델사업 등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18개 사업과 5천만 원 이상이 투입 되는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정성 분석사업 연

구용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등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선정된 대상사업은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으로 관련 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의 이름이 공개된 만큼 사업 추진의 책임감이 더욱 더 확보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시행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 실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여려는 제도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검정고시 대비반, 합격자 10명 배출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꿈드림 사업' 일환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해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2017년 제1차 검정고시 중·고 과정에 모두 12명이 응시해서 고등학교 과정 8명, 중졸과정 2명 모두 10명이 합격했다.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월부터 학원장과 청소년 지도사, 대학생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과목을 담당하여 수업을 진행,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다.

상담복지센터는 "연중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과 학력 취득을 돕고 있다"며 "참가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담복지센터 '꿈 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업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복교나 상급 학교 진학, 검정고시 대비반, 대학 탐방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진출을 꿈꾸는 청소년에게는 직업 체험과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신록의 계절' 내장산 관광객들 줄이어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내장산의 신록이 날로 짙어지면서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싱그러움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갖고 싶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늘고 있는 것.

지난 주말 내장산을 찾은 수성동 강씨네는 "연중 내장산을 자주 찾지만 신록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요즘 내장산이 가장 좋다"며 "이들과 함께 쾌적한 자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피로가 싹 가신다"고 말했다.

가을 원색의 화려함을 빼내는 내장산 단풍나무는 초록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다.

내장산에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단풍나무, 단풍종, 좁은 단풍, 털참나무,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11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내장산 단풍은 잎이 작고 빛깔이 진한 팻빛이 인상적으로, 아기 조막손처럼 작다 하여 '해가단풍'이라 부른다.

이처럼 다양한 단풍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수종들이 펼쳐는 초록의 아름다움, 기묘묘한 봉우리와 지난해 전종현역 정자로 새롭게 지어진 우화정과와 조화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초록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일러 하청음(夏淸陰)이라 부르는 이유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한방 난임 치료비 무료 지원 대상자 모집

정읍시보건소가 정읍시한의사회와 실시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1인당 최대 한도 180만원) 지원 대상자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보건소와 한의사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을 통해 생식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보건소와 한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물론 출산율도 높인다는 방침이

다. 지원 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와 부부의 신분증을 갖고 기간 내 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539-6126)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와 한의사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 등을 검토 심사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흥덕파출소,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총력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에서는 28일 흥덕면 후포리 등 마을 곳곳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륜차를 운행하도록 계도하는 교통안전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계도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이륜차 운행중인 어르신들을 정지시켜 최근 발생한 이륜차 사고와 관련

하여 시제를 설명하고 안전모 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2배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현장중심 순찰활동시 이륜차 준법분위기를 유도해 이륜차 사고예방에 온 경찰력을 집중해 나갔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하여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